

경찰청과 함께 하는 토요일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 포천경찰서와 나눔 행사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대표 양주승)은 9월27일 11시부터 오후4시까지 경찰청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포천경찰서(서장 양종렬)와 함께 실시했다.

"따뜻한 가슴으로, 국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실천하듯 이날 포천경찰서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모은 물품을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양주승 대표는 "지난해에도 경찰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도 도움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정과 희망을 나눌 수 있었다"고 밝히고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나눔의 순환은 하늘의 보물 창고에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은 9월27일 11시부터 오후4시까지 경찰청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포천경찰서(서장 양종렬)와 함께 실시했다.

보관되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렬 포천경찰서장은 "아름다운 가게를 알기 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모아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며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문화적인 인식이 높아졌으며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천경찰서에서 기증한 물품을 판매한 결과 80여만원의 모았으며 이 금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은 매일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4시간 기준으로 봉사할 '활동전사'를 모집한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물건을 판매할 업무로 봉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031-535-779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터뷰 ... 슈퍼영재 정진경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 되겠다"

이동초등학교 6학년 정진경(12·사진)학생이 선발시험을 거쳐 포천시 초등학교로 유일하게 슈퍼영재 교육을 받고 있다.

영재와 슈퍼영재의 차이점은 영재는 교육을 10명이 1명의 교사에게 의해 영재수업을 실시하고 슈퍼영재는 교사 1명이 슈퍼영재 1명을 대상으로 영재수업을 실시한다.

정진경 학생은 "여러 명이 함께 공부할 때는 질문사항이 많아 수업진행이 늦어졌지만 1:1로 수업을 하다보니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도 빠르고 이해도 잘 된다"고 말했다.

슈퍼영재교육은 1주일에 온라인으로 18시간, 오프라인으로 12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을 이용해 학교나 교육청에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진경 학생은 "수학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조노모시스템을 사용해 다면체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경 학생이 슈퍼영재로



선발되기 전 남양주에서 치른 선발고사 문제는 경기도관광문화 1박2일여행코스 만들기는 주제로 경기도 가평군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

정진경 학생은 "장래희망은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로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고 삼당학교는 이동중학교에 훌륭한 컴퓨터 선생님이 계시어서 이동중학교로 진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 한마당 이야기

스님이 남긴 교훈

아주 옛날 산골,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아이가 하나 있었습

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 온 종일 우는 게 일이었지요. 아기의 부모는 우는 아이에게 회초리로 울음을 멎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를 수박에....

그 날도 부모는 우는 아이에게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집 앞을 지나던 노승님이 그 광경을 몰려가 보다가 불연무슨 생각이 난 듯 집으로 들어와서 매를 맞고 있는 아이에게 넉죽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에, 놀란 부모는 스님에게 연유를 묻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하찮은 아이에게 큰절을 하는 것입니까?"

"예... 이 아이는 나중에 정승이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러니 꼭고 귀하게 키우셔야 합니다"라고 답하고 스님은 훌쩍히 자리를 뒀습니다.

그 후로 아이의 부모는 매를 들지 않고 공을 들여 아이를 키웠습니다. 훗날 아이는 정말로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스님의 안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감사의 말씀도 전할 겸 그 신기한 예지에 대해 물어보고자 스님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스님을 찾은 부모는 웃음을 띄며 감사의 말을 건네고 바로 공경했던 집을 뒀습니다.

"스님, 스님은 어찌 그리도 용하십니까, 스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되리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빙그레 미소를 띤 노승은 찻을 한 잔씩 권하며 말문을 엮

니다. "이 돌출이 어찌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까... 허허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하나이지요."

이해하려 애쓰는 부모를 주시하며 노승이 다시 말을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귀하게 보면 한 없이 귀하지만, 하찮게 보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법이지요. 마찬가지로 아이를 정승같이 귀하게 키우면 정승이 되지만, 머슴처럼 키우면 머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세상을 잘 살고 못사는 것은 마음가짐에 있는 거라 말할 수 있지요."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장

이해하려 애쓰는 부모를 주시하며 노승이 다시 말을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귀하게 보면 한 없이 귀하지만, 하찮게 보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법이지요. 마찬가지로 아이를 정승같이 귀하게 키우면 정승이 되지만, 머슴처럼 키우면 머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세상을 잘 살고 못사는 것은 마음가짐에 있는 거라 말할 수 있지요."

(문의 011-342-5834)

"12월에는 모두가 모임시다"

정심장학회 정기회의에서 밝혀

포천시 소흘읍 지역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정심장학회(회장 이주석) 정기회의가 10월8일 오전 11시30분 송우리 소재 신수원기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신규 회원으로 승진비료 최영주 대표의 인사와 이주석 회장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최영주 신임 회장은 "저를 뽑는 분, 그리고 자주 뵈던 분을 한 자리에서 만나니 반갑다"며 "좋은 자리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석 정심장학회 회장은 "회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지역에 공헌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 달라"며 "오늘 북부기우회에는 통일부장관 특강이 있었으며 통일부장관이 경기북부지역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회원들의 건강과 항상 좋은 일로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모임에는 단재장 및 기관장을 초대하고 정심장학회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학교장을 초대해 모임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소흘읍 지역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정심장학회(회장 이주석) 정기회의가 10월8일 오전11시30분 송우리

불우이웃돕기 성금 50만원 기탁하기로

포천시 시설재소연합회 정기 임원회의에서

포천시시설재소연합회(회장 원성숙·사진)는 10월8일 12시 소흘읍 송우리 청정식당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기탁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또 친환경 시설재소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포천시에 예산증액을 요청하기로 하고 친환경 농약 공동구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성숙 회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을 극복하고 시설재소



의 과학경영과 친환경 재배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고 당부하고 "서로 힘을 모은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웃음 넘치는 세상 만들기 ㉑

신바람으로 경로당의 웃음 열기(1)

포옥 다문 입술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신다.

맨 처음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인지 웃음이라는 말을 왜 하든지 초차 생각을 못하시니 말이다.

그곳 남자 어르신들의 첫 만남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면 큰 소리로 인사를 해도 그저 그러려니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다. 팔장 낀 모습이 왜 그리 어렵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을 뒤로하고 어르신께 말씀 드렸다

어르신, 어디를 가도 앉아서 계시는 분들의 모습이 각기 다른데 팔장 끼고 계시는 모습은요, 그래 내가 뭐든 해 바라 내가 받아들여야 하니 하는 마음이 강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두팔 편안하게 내려놓으신 분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했더니 자연스럽게 팔을 내려 놓으셨다.

이제 틈새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여자 어르신들이 서너분이고 나머지 삼사십분 모두 남자 어르신이다.

특별한 경로당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노인회 담당자님의 말씀과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도

하지 않아서인지 많이 어색해 하신다는 설명으로 마무리 해주신다.

자~~~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했더니 억지로 하시기에 "아무리 벌리 할까요"했더니 되어서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팔을 들어 하트를 그려보세요, 쓱쓱하다고 하시면서도 웃으며 팔을 들어 주시고 손가락으로 엄지 검지 장지 약지 애지 하면서 소리지르며 손가락 운동 하시는 모습이 정말 유치원생을 연상한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손가락을 하나 하나 만져보고 자신의 것이 아닌 양 새삼스럽게 기억해 주시는 모습이 더더욱 어린이아이처럼 느끼게 한다.

또한 눈과 눈이 마주치고 한 분 한 분 웃음을 같이하는 모습에서 정말 어렸을 때 웃을 짓던 놀이도 생각하게 한다.

지금부터는요~ 니게 내게 하면서 박수치기 합니다. 오른손 무릎 위에 바닥 펴고 왼손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노래 부릅니다.

"자 시작! 내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어르신들의 얼굴에 화색이 환하게 돈다.

잠시나마 어르신들의 지나간

추억들을 꺼내며 기억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이다.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팔운동과 얼굴 운동이 함께 되는 것이지요. 하고 말씀드리면 자연스러운 행동이 환한 웃음 속에 녹아 내리게 된다.

"이제 손을 잡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하세요, 이곳은 모두가 함께 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하고 당신이 있어 웃어보고 당신이 있어 즐겁습니다. 항상 배려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겠습니다."

"늘 배려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화벌 일도 싸울 일도 없습니다. 늘 신바람 나는 경로당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신바람 부는 오색의 계절에 경로당에도 환한 웃음이 넘쳐나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김순희 웃음치료사
문의 : 018-222-1790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군정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9월 30일 ~ 10월 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2008. 9. 30 포천신문 제426호 발행

2008.10.10 포천신문 제427호 발행

2008.10.20 포천신문 제428호 발행예정

취재기자 모집

소신있고 성실한 취재기자를 모집합니다. ☎031-542-1507